

## 브리태니커의 운명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고, 가장 많은 발행부수를 자랑해온 세계백과사전의 대명사 브리태니커(Britanica)가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5년 동안 30%의 매출감소를 기록한 끝에 새로운 투자자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운명에 놓인 것이다. 몸살의 원인은 사전의 CD롬화에 따른 총체적인 백과사전업계의 불황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단 한장의 CD롬에 담아내는 일이 가능해지면서 책으로만 이뤄졌던 백과사전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1768년 처음 출현한 이후 브리태니커는 사회적인 양상에 따라 적지않은 영향을 받아 오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근본적인 위기에 처한 적은 없었다. 영국에서 처음 발행되기 시작했을 때의 브리태니커는 소책자 100권으로 분리되어 매주 1권씩 발행하던 사전이었다. 그러다가 100권이 모두 완간된 1771년 이것을 3권으로 통합해 초판을 찍은 것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효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영어로 제작됐다는 강점을 안고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했던 브리태니커는 1차대전의 여파로 위기를 맞게 된다. 전승국이긴 했지만 전쟁의 타격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영국이 더이상의 개정판을 펴낼 여력이 없었던 것.

전망이 불투명했던 브리태니커를 부활시킨 인물들은 당시 뉴욕 지사 편집국의 대표자

세계적인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던 브리태니커가 전자출판시대를 맞아 새로운 운명에 놓이게 됐다. 10만6천개가 넘는 항목, 총 3만 2천여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세계 정보시장을 쫓아오던 브리태니커는 이제 어느덧 '브리태니커 살리기'를 전문문화 보존의 차원에서 추진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였던 후퍼(Franklin Hooper)였다. 그는 1910년에서 1912년 사이에 나온 브리태니커의 축소판을 새롭게 제작해 미국의 통신판매 회사를 통해 전세계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130년 동안 영국에서 발간되던 브리태니커가 미국으로 자리를 옮겨 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1938년부터는 매년 부록으로 연감(Britanica Book of the Year)을 함께 발행해 독자들의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이후 경제사정이 좋아진 영국은 미국측에 판권반환을 요구했지만 미국측은 끝내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리태니커가 내용에 충실을 기하면서 지금의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1920년 판권을 인수해 회사를 운영하던 레베르사가 1941년 브리태니커에 관한 일체

의 권리를 시카고 대학에 무상으로 기증하면서부터였다.

권리를 인수한 시카고 대학측은 부총장인 윌리엄 벤톤을 출판책임자로, 예일대학 총장인 로버트 M. 휴턴스를 편집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토론토 대학 등 세계 유수의 대학 교수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브리태니커의 개정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브리태니커가 백과사전으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지니고 있다는 평판을 듣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였다.

그후 브리태니커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10만6천개가 넘는 항목에 4천4백만 단어를 수록한 총 페이지만 3만2천 페이지가 넘는 30권의 분량으로 세계의 정보시장을 풍미해왔다. 그러나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다른 백과사전들과 마찬가지로 브리태니커의 아성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적갈색 브리태니커 전집을 거실 서가에 꽂아 놓는 것이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자랑스럽다”고 느끼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가정용 컴퓨터가 백과사전을 대신하면서 브리태니커사는 전자출판으로의 영역전환을 하기 위한 투자자 물색에 나서고 있고 미국내에서는 브리태니커 살리기를 전문문화 보존의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한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가 없다.

# 출판저널

통권 제172호/1995년 6월 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정혜옥 허연  
                  한강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지옥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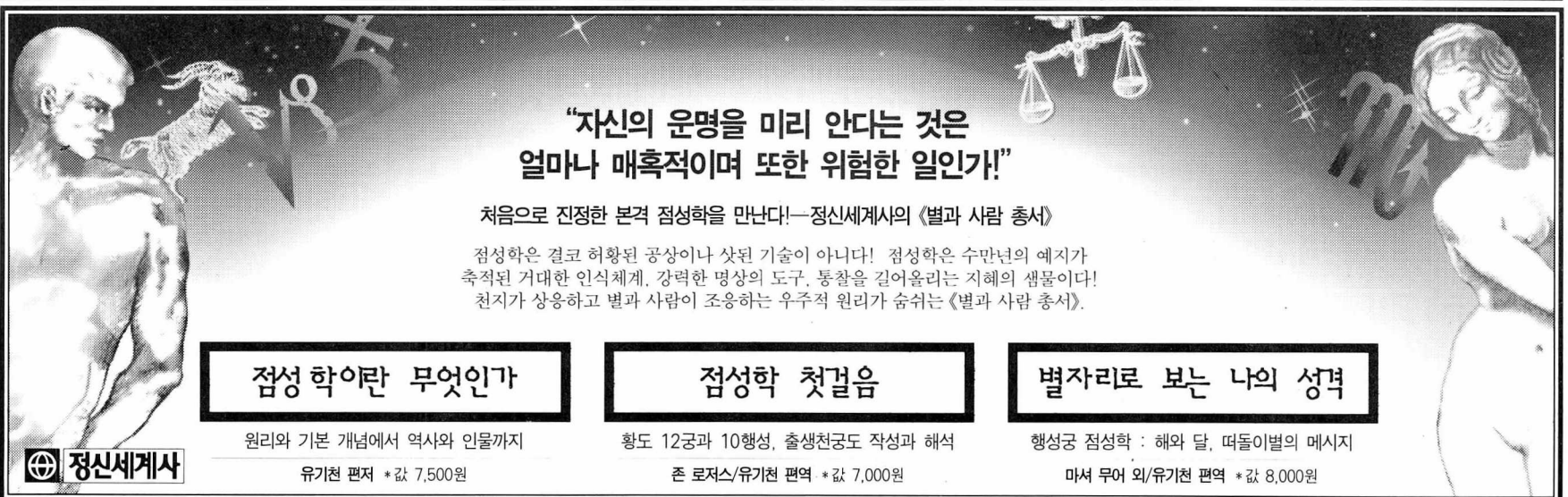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료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액이나 사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료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료용지에 본사 지료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안다는 것은 얼마나 매혹적이며 또한 위험한 일인가!”

처음으로 진정한 본격 점성학을 만나다!—정신세계사의 《별과 사람 총서》

점성학은 결코 허황된 공상이나 샷된 기술이 아니다! 점성학은 수만년의 예지가 축적된 거대한 인식체계, 강력한 명상의 도구, 통찰을 길어올리는 지혜의 샘물이다! 천지가 상응하고 별과 사람이 조응하는 우주적 원리가 숨쉬는 《별과 사람 총서》.

### 점성학이란 무엇인가


원리와 기본 개념에서 역사와 인물까지  
유기천 편저 \*값 7,500원

### 점성학 첫걸음

황도 12궁과 10행성, 출생천궁도 작성과 해석  
존 로저스/유기천 편저 \*값 7,000원

### 별자리로 보는 나의 성격

행성궁 점성학 : 해와 달, 떠돌이별의 메시지  
마서 무어 외/유기천 편저 \*값 8,000원



정신세계사